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0년 10월 11일 (둘째 주일)

성경본문 : 로마서 12장 1-2절

설교제목 :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삶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세속화는 세상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삶이란 세상 안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과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부드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이 세대와 따로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따로 세운다는 것은 장소와 공간의 문제가 아닌 태도의 문제입니다. 분리가 아닌 구별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되 세상의 세계관에 섞여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데 기독교와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가령 불교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다니면서 샤머니즘적인 사고로 삽니다. 결국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것의 핵심은 세계관입니다. 결국 신앙의 싸움은 기독교적 세계관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절대로 섞이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2절을 봅시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야 합니다. 넓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수요일에 히브리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쓴 목적이 우리 시대와 연관됩니다. 당시 히브리서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 고난 속에서 도전받았습니다. 로마제국의 핍박이 거세어졌습니다. 본토 유대교에서의 거센 회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전 앞에서 흔들리고, 배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서를 쓰게 된 동기는 회유와 배교의 상황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의 상황이 동일합니다. **오늘날 코로나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두 가지입니다.** 예배에 대한 도전입니다. 신앙인과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히브리 독자에 대한 도전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본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유의 근본적인 본질은 **예수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이러한 도전에 어떤 답을 제공했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를 제대로 알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혼돈과 위기의 시대에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혼란과 위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인이라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후 수많은 흔들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자신의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림없이 순종합니다. 삼일 동안이란 위기의 순간을 극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왔기에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혼돈과 위

기의 시대에 세속에 뒤섞이지 않고, 흔들림없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분별하라’는 ‘도키마조’는 히브리어 ‘빠한’과 같은 단어인데 ‘불로써 순수성을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검증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십계명입니다. 신명기 저자는 신명기 법전을 통해서 십계명을 상황화시켰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세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십계명의 원리를 철저하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적극적으로 적용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신10:13**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와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저자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행복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행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토브**입니다. 토브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에덴의 뜻이 기쁨입니다. 에덴이 왜 기쁜 곳입니까? 하나님의 규범과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규범과 뜻을 깨고 나와 실낙원했습니다. 참된 기쁨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인간은 불안한 상태로 살게 됩니다. 하이데거는 이것을 **인간의 실존적 불안**, 루터는 **영의 존재론적 우울**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늘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에덴은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삶이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분의 선함이, 그분의 기쁨이, 그분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구역공과를 가지고 스스로 묵상하시거나, 구역마다 대화방을 만들어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생각해 보기

- 1)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지 설명해 봅시다.
- 2)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에서 ‘분별하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 3)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지 설명해 봅시다.
- 4) 그리스도인이면서 샤머니즘적인 사고방식으로, 혹은 유교적 사고방식으로, 불교적 사고방식으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 예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고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코로나 시대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당신은 참된 예배자인가?와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도전과 질문 앞에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